

인도네시아의 브릭스(BRICS) 가입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 ◆ '25.1월 BRICS의 파트너 국가에서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인도네시아는 BRICS 가입으로 회원국간 경제 협력, 수출 확대,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일부 상쇄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인도네시아는 '25.1월 BRICS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BRICS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이 구성한 다자간 협력체로 출발, '24.1월 UAE·이집트·이란·에티오피아가 새롭게 가입하며 9개 회원국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는 '24.10월 BRICS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였으며, '25.1월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여, BRICS 회원국은 10개국으로 확대
- * BRICS의 파트너 국가는 9개국(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태국, 쿠바, 우간다,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으로 BRICS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공동성명 등에 참여 가능

□ 인도네시아는 회원국간 경제 협력, 수출 확대,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일부 상쇄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BRICS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 입지 확대 등 기대
 - NDB*를 통한 인프라 개발 지속 및 재원 확대의 기회 확보 가능
 - * New Development Bank: IMF, World Bank 등의 대안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으로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등에서 회원국과의 협력 및 핵심적인 역할 수행 가능
 - * 전세계 매장량의 42%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3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니켈 가격 유지, 환경 보호, 자국내 제련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원광 생산량 조절 및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시행 중
- 중국·인도에 집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 및 경제성장 도모
 - 인도네시아의 對BRICS 수출 비중은 '24년 기준 34.6%(714.7억달러)이며, 중국과 인도 비중이 각각 23.6%, 7.7%
 - 수출 비중 1% 미만인 여타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인도네시아 對브릭스 국별 교역 비중('24년)

(단위 :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UAE	아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합계	미국
수출	0.7	0.5	7.7	23.6	0.3	1.2	0.6	0.1	0.0	34.6	10.0
수입	2.3	1.0	2.4	31.1	0.7	0.9	0.1	0.0	0.0	38.5	5.1

자료 : trademap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對BRICS 수출 확대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對中 고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수입 수요(특히 원자재) 감소로 인도네시아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인도를 비롯한 여타 BRICS 회원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국 주요 원자재 수입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2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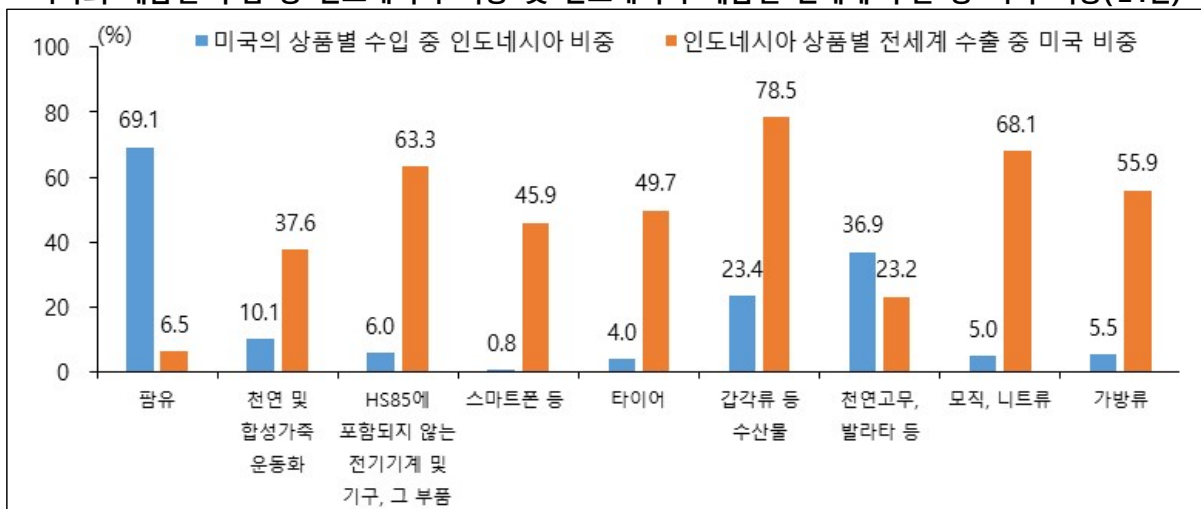
상품명	페로합금	니켈 매트 및 니켈 아금 중간 제품	스테인레스강 평판 압연제품	산업용 모노카르 복합 지방산	스테인레스 강철
비중	65.5	75.5	84.9	55.4	85.6

자료 : trademap

- 미국의 관세정책이 인도네시아를 향하거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팜유*, 고무 등은 美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인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운동화, 의류 등은 BRICS 회원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활용 가능

* '24년 對美 수출 1위 품목

미국의 제품별 수입 중 인도네시아 비중 및 인도네시아 제품별 전세계 수출 중 미국 비중('24년)



주 : 품목별 對미 수출 금액순

자료 : trademap

□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합이 더욱 높아질 전망

-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피해 해소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BRICS 회원국이며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수출 확대 전망

* '24년 GDP 1조 4,026억달러(16위), 인구 2.8억명(4위)

- 우리나라와 중국은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제품 등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30개 품목 중 16개가 겹치고 있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확대가 불가피
 - 현지화 전략,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내 입지 강화 및 對中 경쟁력 우위 확보 필요